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치료 잘하는 병원
친절한 병원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8966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음력 6월 20일)

이재명 정부 'RE100 산단' 본격화…전남 발전 시금석 기대

〈재생에너지 100%〉

대통령실, 후보지로 서남권·울산 지목

범정부TF 구성·특별법 제정 등 속도

에너지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기대

金지사 "RE100 산단 성공모델 만들것"

이재명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면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남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9면

정부가 후보지로 지목한 서남권이 향후 RE100산단으로 본 지정될 경우 전기료 할인, 규제 제로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토대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청사진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후보지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 RE100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환영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RE100 산단은 입주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업단지다.

RE100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기업을 비롯해 이들 기업에 부품·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유치해 RE100산단을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규제 제로'와 교육·정주여건 개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 전기 할인 혜택을 주문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포함한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해온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허수사업자를 가려내는 방안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2.3GW까지 계통 접속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초고압직류송전인 HVDC 등 신기술 활용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포함된 K-그리드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관련 산업을 선도해온 전남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풍부한 발전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전력 수요가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수요-공급 미스매치' 상황에서 RE100 산단 지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의 전력 자급률은 213.4%로 울산(228.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기준 전남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6.6GW로 전국 34GW의 19%를 점유하고 있다.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남 85개 모든 변전소의 추가 접속을 제한하는 계통관리변전소를 지정하고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한 상태다. 특히 서남권 RE100 산단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사업, 2030년까지 연간 1조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실현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 RE100 산업단지 정책 환영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 성장동력 확보에 혼신을 기울여온 결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을 향한 길이 빠르게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의 획기적 RE100 산단 정책을 발판삼아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육성, '연간 1조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실현 등 미래 에너지 신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비롯한 서남권에 AI 에너지 신도시와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구축,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와 첨단식품산업, 미래 첨단산업 RE100 융복합단지와 AI 컴퓨팅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온힘을 쏟겠다"며 "정부와 함께 RE100 산단과 미래 에너지 신도시의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폭염 몰아내는 장대비 폭염을 몰아내는 많은 비가 내린 13일 오후 광주 남구 대남대로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에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애리 기자

'폭염특보' 16일만에 해제…이번 주엔 '폭우'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총 118명

최대 100㎜ 이상…비 '오락가락'

광주·전남 전역에 발령됐던 폭염 특보가 16일만에 모두 해제된 가운데 이번 주 100㎜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 경보·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관련기사 2·3면

올해 폭염 특보는 지난달 27일 일부 지역에 처음 내려진 후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돼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선 6월 일최고기온이 경신됐고 7월 상순 기온값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온열질환자도 광주 26명, 전남 92명 등 총 118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폭염 특보가 해제된 것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과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나주 115㎜, 강진 113.5㎜, 해남 113㎜, 장흥 60㎜, 광주 40㎜ 등이다.

이에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진도를 시작으로 호우 특보 발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장흥·나주·강진·해남에는 호우경보가, 광주와 나머지 전남 시·군 대부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비는 이번 주 내내 내리고 그치길 반복할 전망이다.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서부 30-80㎜, 나머지 전남 지역 50-100㎜다.

14일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15일과 16일은 각각 28-30도, 27-30도다. /안재영 기자

알림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문화관광축제 트렌드·서비스·마케팅 특강

9월16일 개강 5차례 강의…선진지 견학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2025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 참여할 원우를 모집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관계자, 관광에 관심 있는 시·도민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전문강사의 이론과 국내·외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와 안태기 광주대 교수, 석장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등이 강사로 참여해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과 문화관광축제 트렌드·마케팅 등 관광산업 전반의 이론을 습득하고 토론의 장을 펼칩니다.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부산과 진주를 비롯, 일본 대마도에서의 현장 학습을 병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는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을 폭넓게 이해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 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모집 인원 : 50명 안팎
●교육 기간 : 2025년 9월16일 개강, 9월24일-26일 현장학습(부산·진주·일본 대마도), 9월30일 종강
●지원 자격 :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강의 방식 : 전문가 특강 5회/현장 학습(2박3일)
●수 강 료 : 250만원(현장 학습비 포함)
●모집 기간 : 2025년 8월30일까지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8

광주매일신문

Today

전남 서남권 연결 철도 9월부터 달린다 5면

로컬기업 '팜스뱅크' 세계 시장 진출 12면

김태군이 쏘아 올린 한여름밤의 축포 16면

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주소,전화,이메일,학생부(학교명·학년)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